

보도시점 2024. 1. 19.(금) 18:15 배포 2024. 1. 19.(금) 18:15

국민권익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고자 보호업무를 하고 있습니다

□ 2024. 1. 18.자 경향신문 보도 <쏟아지는 공세, 방치하는 권익위...
공익신고자는 설 자리가 없다>와 관련된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.

□ 국민권익위원회 입장

○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고 관련 보호사건입니다.

국민권익위는 보호 신청인에게 조사 착수를 위해 자료 보완을 요청한 상황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.

○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, 국민권익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자 보호조치를 하고 있으며 사건취하를 강요한 사실이 없습니다.

□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고자가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.

담당 부서	신고자보호과	책임자	과 장	박홍상 (044-200-7771)
		담당자	사무관	양은경 (044-200-7779)